

기고

우리 집 지키는 첫번째 안전장치, 주택용 소방시설

최근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여전히 큰 인명·재산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는 다소 감소했지만,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초기 1-2분'이 생사를 나누는 만큼, 경보와 초기진압이 실제 피해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주택 화재 피해 조사 결과 상당수 가정에서 연기감지기나 소화기 등 기본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결코 복잡하거나 비싼 장비가 아닙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가 발생하는 즉시 경보음을 울려 가족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며, ABC형 분말소화기 한 대만 있어도 초기 불길은 충분히 진압할 수 있습니다.

전남은 고령 인구와 농촌형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화재 대응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화재 발생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스스로 초기 행동을 할 수 있는 장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월 1회 정도 작동 여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화재예방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집에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안상운

중국 금(金)나라 역사의 왕실 세계도(世系圖)를 보면 시조가 함보(函普)인데, 고려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금나라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고, 고려 역시 금의 뿌리가 고려에 있다고 여겼다(고려사). 그런데 금의 형제가 바뀌자 '부모의 나라'였던 고려는 '형제의 나라'로 기록이 바뀐다.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형제국가와 자매도시

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당수의 자매도시, 외국의 시와 자매도시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선린 관계가 지역 수준의 유사성, 역사적 사연, 지리적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상부상조하여 자매같은 케미를 보이고 있다.

자매도시 결연 사례 중 아주 흥미있는 스토리가 있다.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에 있는 할슈타트는 아름다운 '동화 속 호수마을'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모방하기를 좋아하는 중국이 이 지역을 그대로 광둥성 후이저우에 가짜 '할슈타트'를 만들었다.

오날 '형제 국가'의 상시적 개념은 역사, 문화, 군사, 외교 등 다양한 면에서 친연성(親緣性)으로 맺어질 때 서로 부르는 언어이며, 두 나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역사적으로 과거에 동일한 국가에 속했었던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근래에 자매도시라는 용어가 플랫폼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 시민의 문화 교류나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관계의 개념이다. 지자체 실시 후 광역자

다. 여흥 중 이스탄불에서 성소피아 성당을 관람하면서 안경테가 파손되었다. 그래서 어렵게 그 지역 주변 안경원을 찾았다. 안경원 대표는 바로 한국인(South Korean)임을 알고 "영어로 형제 나라(Brother's country)에서 오셨군요!"라며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우리나라는 UAE로부터 원유 수입은 전체의 2-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설, 반도체, 방산 등은 물론 K-푸드까지 수출할 계획이다. 이제 양국은 파트너가 아니라 형제 국가로 지속적인 선린 관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십자사를 창시하고 제1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장 알리 뒤낭은 이탈리아 전투에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자를 보듬으며 이렇게 외쳤다. "뚜띠 뿌라떼리!" 이탈리아어로 "모두가 형제!"라는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한국과 튀르키예의 3.4위 경기이었다. 자국에서 볼 수 없는 한국인의 우렁찬 응원과 대형 튀르키예 국기가 경기장 관중석에 펼쳐지고 있었다. 이 모습을 TV로 시청한 튀르키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의 부국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여 "한·아랍에미리트(UAE),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라고 표현하며 상호 미래 성장동력 창출하자고 했다.

우리나라는 UAE로부터 원유 수입은 전체의 2-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설, 반도체, 방산 등은 물론 K-푸드까지 수출할 계획이다. 이제 양국은 파트너가 아니라 형제 국가로 지속적인 선린 관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형제 국가란 국익에만 편중하면 실패할 수 있다. 국난이나 재앙이 닥칠 때 아낌없는 물질적 지원과 희생이 따르는 지원이 뒤따를 수 있을 때 형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국제적십자사를 창시하고 제1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장 알리 뒤낭은 이탈리아 전투에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자를 보듬으며 이렇게 외쳤다. "뚜띠 뿌라떼리!" 이탈리아어로 "모두가 형제!"라는 뜻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음력 10월 25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Includes signs lik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celebrating 50 years of expressway expansion. Features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50th anniversary.